서평

이문우 서로의 취약성 속에서 무한히 연결되기를
: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고

10.15686/fkl.2021..53.500

서로의 취약성 속에서 무한히 연결되기를
: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고

이문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현실 문제와 유리되는 것이 아닐까(314)”[1]라는 저자의 우려와는 달리,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으면서 나는 이 책이 타인의 취약성에 공명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재편해주면서 상호의존과 연대의 가능성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는 일은 다채로운, 다종다양한 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취약함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할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연대, 김원영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연립은 타자의 이질성, 개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를 통할 때 가능해진다. 김초엽과 김원영, 두 저자는 각각 고유한 ‘몸’의 경험을 나누고 세계를 재편하는 다양한 ‘현실의 사이보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장애의 미래를 상상하고 ‘우리’가 잇닿아 존재할 수 있도록 ‘연립’의 토대를 만들어낸다. 나는 이 글에서 김초엽과 김원영이 드러내고 상상하는 장애의 세계를 따라 읽어보며 보다 폭넓은 세계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사이보그가 되다: ‘결여’에서 ‘자긍심’으로 나아가는 길

김초엽과 김원영. 보청기와 휠체어라는 서로 다른 두 보조기기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두 사람은 ‘사이보그적’인 존재라는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작가는 “첨단 기술의 최전선(25)”으로 여겨지는 사이보그의 대중적 이미지를 뒤집고, 실제 삶에서 기계와 접촉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의 삶과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의 사이보그 이야기를 써나간다. 두 작가에게 사이보그라는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통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으로 장애를 다시 보는 일이다. 곧 “새로운 사이보그 은유를 중심으로 기술과 장애인의 몸이 맺는 관계의 실재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일은 (…) 오히려 그동안 기술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105)”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두 작가가 기존의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실존하는 장애인

1 김초엽, 김원영 지음,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출판사, 2021. 이하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 쪽수로 표기.

의 삶을 바탕으로 사이보그의 이야기를 다시 써나갈 때, 둘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책의 표제인 '되다'라는 동사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일종의 선언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는 자신을 "'없음(결여)'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음'에 해당하는 존재로서(62)" 만나는,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연결된다. 일라이 클레어가 말하듯, "자기혐오를 자긍심으로 바꾸는 일은 근본적인 저항 행위다."[2]

김초엽에게 이 자긍심은 장애를 모든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한다. 여러 편의 글을 통해 그는 인간의 취약성에 대해 말한다. 이 책의 후기에서 김초엽은 이 책을 쓰는 과정이 "나의 취약함과 의존성,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358)"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그가 취약성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할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취약성을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몸과 능력의 위계에 대해 말한다.

> 비장애중심주의, 즉 능력차별주의는 취약한 몸, 손상된 몸, 의존하는 몸에 대한 혐오이며, 건강하고 탁월하고 독립적인 몸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관념이다. 취약하거나 건강한 몸으로부터 산출되는 능력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능력차별주의가 미래에도 지배적인 이념으로 남아 있는 한 어떤 몸들은 늘 멸시의 대상이 된다. 지금 장애로 간주하는 것을 이후에 기술이 제거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가 장애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노화와 질병과 죽음이 모두 사라진 다소 소름 돋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발전한 미래라도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76)

곧 모두의 취약성을 생각하면서 그는 "몸의 위계를 줄 세우고 적합한 몸만을 세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상화 규범에 저항(281)"하며, 각기 다른 몸들을

2 일라이 클레어,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현실문화, 2021, 196쪽.

“세계의 구성원으로 환대하는 미래(15)”을 상상한다. 결국 손상과 취약함, 의존에 대한 사유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일이자 능력차별주의를 끝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저항의 시도이다.

김초엽이 몸과 장애의 위계화를 사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원영 또한 “어떤 몸을 정상적이고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힘(315)”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그에게 자긍심은 “다른 감각-몸-정신의 경험에 주목하고, 그 경험이 단지 결여가 아니라 어떤 풍요로움일 수도 있다는 것(334)”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자신을 결여된 인간에서 휠체어와 통합된en-wheeled 어떤 존재로, 곧 사이보그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때 본격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휠체어를 몸에 더 밀착된 인터페이스로 느끼는 그에게 장애는 “존재론의 문제(61)”다. 그래서 그는 매끄러워 보이는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뒤집고 그 사이에 뜬 이음새의 덜컹거림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현실의’ 사이보그들의 이야기를 증언한다. 그의 작업은 “장애를 극복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환상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기술문명과 무관하게 인간 실존의 한 양식으로서만 장애를 바라보는 것의 한계도 드러내는 일(346)”이다.

이처럼 두 작가가 ‘결여’의 인식에서 ‘자긍심’을 가진 존재로 향해가면서 공통적으로 다시 사유하는 것은 장애를 ‘치료’나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비장애중심주의의 시선이다. 이와 같은 온정적 시선은 위계를 만들고 낙관적 미래를 강조하면서 기술과 연결되고 불화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이야기를 지워버린다. 이와 같은 관점을 뒤집고 세계를 ‘크리핑cripping’[3]하는 두 작가의 작업은 그러므로 장애 정치학으로 이어지며, 일라이 클레어의 말과 맞닿는다.

> 우리는 의료적 치료보다는 시민권, 동등한 접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회, 장애인을 존중해주는 양질의 보건 의료, 차

3 “무언가를 ‘크리핑’한다는 것은 비장애중심주의와 정상성 규범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애를 단순한 결함이 아닌 어떤 가능성과 다양성의 자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185-186).”

> 별이 철폐된 교육을 원한다. 우리는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고립되고 기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를 두렵고 혐오스러운 인간 상태로서 변두리에 놓는 게 아니라, 지배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서 한가운데 놓도록 가치 기준을 재정의하길 원한다.[4]

사이보그가 되어 장애를 다시 사유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학으로서 "장애-과학기술의 역학 관계(344)"를 뒤집어 보는 것이고, "기술의 민주화(349)"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류정치의 흐름을 거슬러 세계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사이보그가 되다』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정치력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돌봄과 수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계를 재설계하고 연립과 환대의 미래론을 상상하는 순간이다.

매끄러운 세계 속의 덜컹거림을 듣기: n번째 연결을 꿈꾸며

우리가 현재를 재설계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 연립과 환대를 제시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두 작가가 제시하는 현실 속 사이보그들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연립과 환대는 구체성을 얻고, 그 지점에서 이 책은 강한 정치적 기획력을 지닌다.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청테이프 같은 존재들"의 이야기로 오토박스라는 테크놀로지와 Y가 만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대목이었다. 김원영은 '휴머니즘적 영웅'은 아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적는다.

> 이렇게 Y와 나, J의 아버지, 정비사 B, J의 자동차, 오토박스라는 기계는 그 장소에서 만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Y에게 적절한 오토박스를 새로운 자동차에 설치했다. (…) 나는 Y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과 기계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순간에 관한 현실적인 세밀화를 본다. (…) 눈에 띄지 않는 평

4 일라이 클레어, 앞의 책, 218쪽.

범한 연결들의 거점에서 등장하는 사이보그적 존재는 그 연결들 때문에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그 연결들을 지탱하고 견딘다는 점에서 "청테이프처럼 영웅적이다."(112-113)

흥미로운 것은『사이보그가 되다』출간 기념 북토크가 바로 이러한 청테이프 영웅들의 힘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5]이다. 예고되었던 문자 통역에 문제가 생겨 북토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던 와중, 사이에 벌어진 이음새를 붙일 수 있도록 세 출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타이핑해 전달하는 청중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세 명의 청중이 합심해서 각 출연자들의 말을 댓글창을 통해 문자통역으로 전달했고, 이 북토크 행사는 그야말로 청테이프 영웅들이 만들어낸 '메타 북토크'[6]가 되었다. 동시에 이 현장은 대담에서 김초엽이 강조한 "장애 당사자들의 아이디어와 지식 생산, 그리고 비장애인 대중의 관심과 연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324)"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북토크 주최측은 본래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고, 이에 문제가 생겨 AUD의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했음에도 문자 통역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자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문자 통역을 맡아 구화 사용자 청각장애인들도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대한 것이다. 이 북토크 현장은 매끄럽지 않은 덜컹거림을 이어내는 청테이프 영웅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

이처럼 김원영이 청테이프 영웅들을 제시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한층 더 매끄러운 연결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매끄러워 보이는 듯한 표면 속 이음새의 '덜컹거림'과 이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수선하고 보수하는(243)" 돌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김원영은 제임스 길링햄의 매끄러운 홍보용 사진에서 그 뒤편에 담겨있는 "보철과 절단 부위가 만나는 지점에서 체중을 적절하게 옮기려 애쓰는 보철 사용자의 미세한 근육 운동, 통증을 견디려는 의식적 노력, 보철을 착용하고도 '자연스럽게' 걷기 위한 노력, 비가 오

5 북토크와 관련된 일화는 다음의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했다.
(https://blog.naver.com/gramy83/222251093037 최종검색일: 2021.08.14)

6 김하나 사회자가 북토크에서 한 말로, 블로그 게시글의 사진 이미지를 참고해 작성했다.
(https://blog.naver.com/gramy83/222251093037 최종검색일: 2021.08.14)

는 날이나 한여름, 한겨울의 기온과 습도를 견디기 위해 매일 보철을 관리하는 손길, 짓무르고 살이 부르트는 접촉 부위를 신경 쓰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돌봄(243-244)”을 본다. 그는 이 매끄러움 이면의 덜컹거림을 유지, 관리하고 수선하는 손길을 “돌봄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하대청의 말을 바탕으로 돌봄의 순환, 돌봄의 연립을 이야기한다.

> 나는 연립이라는 삶의 조건을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 연결을 넘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타자’와도 잇닿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타자는 나를 돕는 활동지원사이고, 안내견이고, 휠체어이며, 보청기이고, 오토박스이고, 청테이프이고, 친구들이며, 관객이고, 독자들이다. 동시에 타자는, 아직은 곁에 없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다. (305-306)

김초엽이 사유하는 미래도 김원영이 상상하는 미래와 멀지 않다. 김초엽이 상상하는 미래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들만이 아니라 아프고 노화하고 취약한 존재들의 자리가 마련된 시공간이다. 그리고 서로의 불완전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의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세계이다. 그곳에서는 삐걱대는 로봇도, 허술한 기계부품을 드러낸 사이보그도 완전한 타자가 아닐 것이다(282-283).”

움벨트, 보편의 역사와 확장하는 SF

두 작가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보그가 되다』를 통해 서로 다르면서도 교차하는 생각을 풀어낸다. 두 작가의 유사성과 차이 속의 교차점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지만, 이 절에서는 여성이자 SF 작가라는 토대 위에서 장애학을 연결짓는 김초엽의 몇몇 사유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초엽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학자들의 활약을 통해 “페미니즘의 관점을 도입해 과학계에서 여성의 성취와 참여가 얼마나 자주 지워지는지, 사회의 젠더 위계가 기술의 설계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차이에 관한 과학 연구는 어떻게 사회적 차별을 반영하는지, 기술 지식의 형성

에 어떻게 여성의 관점이 개입할 수 있는지(180)"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이러한 관점을 퀴어, 인종, 장애 이슈와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페미니즘의 관점은 과학기술학의 영역에 도입된 장애학의 사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드러내는 몇 가지 사례를 살피면서 김초엽은 보편적 설계의 함정을 짚는다. "인류 역사의 보편은 언제나 매우 특정한 신체, 백인-남성-시스젠더-이성애자-비장애인-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중립적 템플릿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203)"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의 개념이 이토록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할 때, 보편의 감각은 깨지고 세계는 재설계된다.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의 생물체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세계"를 지시하는 "움벨트(255)"를 사유한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서로 너무나 다른 움벨트와 감각 세계, 미학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 안에서도 이 감각 세계들은 흔히 어긋나고 미끄러(260)"지기 때문에, 각 개체들의 고유성 앞에서 보편이라는 감각은 힘을 잃는다. 이처럼 각자 고유한 경험을 가진 존재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SF를 쓴다고 김초엽은 말한다. 오랫동안 '배제의 장'이기도 했던 SF는 오늘날 소외를 논하는 최적의 장르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움벨트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계보를 잇는 SF의 여러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김초엽은 다시 SF에 등장한 괴물과 외계인들을 불러들이며 마지막 장을 구성한다. '비인간성'을 지닌 존재로서 "규범을 벗어나는 몸과 정신을 가진 그들은 인간의 세계를 침범하고, 오염시키고, 인간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때로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류의 적이라는 노골적인 설정으로 등장(272)"하지만, 현실의 장애인 독자들은 이 '괴물'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해왔다. 이처럼 김초엽에게 SF의 세계란 이질적이고 보편의 감각과는 다른 존재들을 등장시키면서 "현실의 '다르게 살아온' 독자들에게는 연결감을 주고, 친구와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274)"하는 곳이다.

두 작가의 글이 교차하며 전개되는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는 것은 역사 속의 사이보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이보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두 작가의 고유한 상상을 통해 새로운 계보를 생각하며 세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 책을 읽으며 매끄러워보이는 세계에 이음새를 만들어 나가는 현실 속 장애인 사이보그들을, 장애인 이동권 운동가들을 비롯해 세계에 덜컹거림을 만들어내는 활동가들을 떠올렸다. 과거와 현실을 오가며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는 두 작가의 기술은 장애인 사이보그들의 이야기를 결코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게 만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몸의 실제적인 물질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험에 기반한 두 작가의 기술은 장애인 사이보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감각하게 만들고 이를 현실정치의 감각과 잇는다. 이 책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직시하고 타자의 고유한 감각을 이해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무한히 연결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본다.